

##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 (K-CMNI-30) 개발 및 타당화\*

이 슬 기<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박사수료생

본 연구의 목적은 Levant 등(2020)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CMNI) 단축형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1에서는 20-50대 성인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0개 하위요인을 확인하였으며, 30문항의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K-CMNI-30)을 개발하여 다차원 요인구조로 10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20-50대 성인 남성 345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과 요인 간 상관으로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남성 성역할 갈등, 전통적 남성성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 불안, 상태분노, 회피적 대처, 정신적 웰빙,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전통적 남성성, 성역할 규범, 척도 타당화

\* 본 연구는 202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이슬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klee086@gmail.com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성역할 규범(gender role norms)으로써 남성적 규범은 어떤 상황에서 남성적이라 여겨지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칙이나 기준을 나타내며 사회에서 남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남성적 규범은 사회적 규범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s)과 명령적 규범(prescriptive norms; injunctive norms)으로 나뉜다(Cialdini & Goldstein, 2004). 기술적 규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형태를 띠며, 때로는 일반화의 대상이 되어 고정관념과 편견을 유발하기도 한다. 명령적 규범은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규칙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should)'와 같은 형태를 띤다. 명령적 규범은 사회적 상황에서 허용되는 행동에 대한 강화나 처벌과 같은 학습 원리를 통해 내재화된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규범에 따르지 말지에 따라 발생하는 긴장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남성적 규범 중에서 정서통제(emotional control)에 관한 기술적 규범은 '남자는 웬만해서 울지 않는다.'처럼 남성의 감정 표현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 자립(self-reliance)에 관한 명령적 규범은 '남자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처럼 오로지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을 남자답게 여기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power over women)에 관한 기술적 규범은 '남자가 여자보다 리더십과 문제해결력이 뛰어나다.'처럼 남성 중심적인 통념이 있을 수 있고, 폭력(violence)에 관한 명령적 규범은 '남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다.'처럼 남성의 폭력적인 행동을

용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남성적 규범은 삶의 여러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며, 이러한 규범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에 따라 얻는 이득과 손실에 따라 규범에 대한 순응은 개인차를 보인다.

###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 (Traditional Masculinity Ideologies; TMI)

남성성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Pleck(1995)의 성역할 긴장(gender role strain), O'Neil(1982)과 Levant(2011)의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 Eisler와 Skidmore(1987)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masculine gender role stress)와 같은 심리적 구성개념을 정의하였다. 이후로는 사회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남성이 성역할 규범을 고수하고 이에 순응하는 정도가 현대 사회에서 남성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개념화되었다.

Mahalik 등(2003)은 성역할 규범 모델을 기반으로 삶의 공적이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남성성을 형성하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conformity to masculine norms)으로 정의했다. 반면, 남성적 규범에 대한 비순응(nonconformity to masculine norms)은 삶의 공적이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남성성을 형성하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이다(Mahalik et al., 2003). 이에 따라,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비순응은 사회에서 허용되는 남성적 특성과 그렇지 않은 특성에 대하여 개인이 구성한 남성성(masculinities)을 반영한다.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비순응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 사회, 문화, 맥락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일 가능성

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성에 의한 역기능적 측면만을 반영한 성역할 긴장(gender role strain),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masculine gender role stress)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비순응은 남성적 규범에 관한 정서, 행동, 인지의 영역을 포함하여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는 다면적인 남성성의 심리적 속성을 반영한 개념적 정의이다. 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은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특질(trait)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생물, 심리, 사회,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맥락과 구조에 의해 지속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Berke et al., 2018; Bronfenbrenner, 1977). 그러므로 남성성(masculinities)은 단일하거나 고정불변한 구성개념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재화되고 학습되는 심리적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역동적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CMNI)

Mahalik 등(2003)은 전통적인 남성적 규범의 주류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미국 사회에서 지배적 문화의 중심에 있는 중산층 이상의 백인, 이성애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표본을 수집하여 성역할 규범 모델과 사회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현대 사회에서 다차원적인 남성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11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94문항의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하위요인들은 승리(winning), 정서통제(emotion control), 위험감수(risk-taking), 폭력(violence), 여성에 대한 권

력행사(power over women), 지배(dominance), 플레이보이(playboy), 자립(self-reliance), 일의 우위(primacy of work), 동성애자에 대한 멸시(disdain for homosexuals), 지위추구(pursuit of status)로 구성되었다. 이후 CMNI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MNI-55 (Owen, 2011), CMNI-46(Parent & Moradi, 2009), CMNI-29(Hsu & Iwamoto, 2014), CMNI-22(Owen, 2011)와 같은 단축형 척도가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6점 리커트 측정방식을 적용하여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개선하고 남성적 규범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문항 수정을 통해 CMNI-30이 개발되었다(Levant et al., 2020). CMNI-30은 10개 하위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잠재변수를 측정한다. 원 척도의 동성애자에 대한 멸시(disdain for homosexuals) 요인은 이성애적 자기제시(heterosexual self-presentation)로 재명명되었고, 지배(dominance) 요인은 승리(winning) 요인에 통합되었다. CMNI-30은 기존의 단축형 척도들보다 높은 모형 적합성과 측정 불변성을 보여주었다.

남성성과 정신건강의 관계는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CMNI를 사용하여 남성의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과 심리사회적 적응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Wong 등(2017)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영어권에서 출간된 74개 논문( $n=19,453$ )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심리적 고통, 물질 남용, 신체상(body image) 문제, 그리고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 기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회적 연결감 등의 사회적 웰빙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신건강과의 관련성보다도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더 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적 규범을 강하게 고수하는 경우,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여러 규범 중에서도 자립(self-reliance),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power over women), 플레이보이(playboy), 정서통제(emotional control) 규범에 따른 순응이 부정적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정신건강 및 전문적 도움 추구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 이러한 규범에 대한 강한 고수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를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조력하는 과정이 제안되었다.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은 남성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진 자기낙인(self-stigma)과도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남성이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과 메커니즘을 검증하는 데 활발히 사용되었다(Berger et al., 2013; Vogel et al., 2011). 또한 디지털 형태의 데이트 폭력을 나타내는 사이버 데이트 학대(cyber date abuse)를 비롯하여 성적 공격성(sexual aggression), 회피적 대처(avoidant coping), 알코올 사용 문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Iwamoto et al., 2010; Iwamoto et al., 2014; Locke & Mahalik, 2005; March et al., 2021).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심리적 웰빙, 공동양육 관계의 질, 자녀와의 관계 만족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Fellers & Schrodt, 2021; Petts et al., 2018; Shafer et al., 2019). 최

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통적 남성성을 강하게 고수하는 남성에게 대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Walther et al., 2023).

CMNI는 상담 및 임상적 개입에 활용될 수 있어 치료적으로도 유용하다. Mahalik 등(2005)은 내담자가 직면한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통합하는 데 있어 CMNI를 활용한 사례개념화를 제안했다. 남성적 규범에 대한 평가와 이해는 내담자가 내재화하고 학습해 온 남성성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남성적 규범이 심리사회적 적응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개인이 보유한 자원과 강점을 확인하는 과정에도 기여한다. 또한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관계나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적 규범에 대한 이해는 남성 내담자 자신 뿐 아니라 남성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역전이나 남성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임상적 시사점을 가진다.

남성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평가하여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높은 내담자에게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전략과 치료적 개입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침묵, 동기 상실, 저항, 조기종결처럼 치료 관계와 상담성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최소화하고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남성 내담자가 지지하는 남성적 규범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 도식들을 활용할 수 있다(Owen et al., 2010; Parent & Moradi, 2009). 따라서 CMNI는 상담 및 치료적 관점에서 남성 내담자를 위한 효과

적인 심리치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CMNI의 요인구조

사회가 남성에게 기대하는 남성성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기 다른 내용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성성의 다차원적 구조가 가정되었고, CMNI 단축형이 개발되면서 다차원 요인구조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이 특정 요인에만 부하되어 요인 간 상관을 허용하는 공통요인 모형(common factor model)의 적합성이 지지되었다(Hammer et al., 2018; Heath et al., 2017; Hsu & Iwamoto, 2014).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적 규범의 하위 개념들을 아우르는 단일 차원의 일반요인도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vant et al., 2015). 이에 CMNI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각 하위요인이 영역 특수적인 요인으로써 개별적인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남성적 규범이라는 상위개념의 일반적인 요인도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 하위요인의 수준에서만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전체 문항을 총합하여 남성적 규범이라는 일반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Levant 등(2020)이 CMNI-30의 내적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 10요인 모형을 지지하였다. 또한 러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CMNI-30을 타당화한 Krivoshchekov 등(2022)의 연구에서는 단일차원 모형(unidimensional model), 공통요인 모형(common factor model), 2차 요인

모형(hierarchical second-order model), 이중요인 모형(orthogonal bifactor model)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척도의 내적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Levant 등(2020)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10요인 모형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MNI-30이 일반요인이 없는 다차원 요인구조를 가진 척도로서 공통요인 모형을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남성적 규범의 각 하위개념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 특정한 남성적 규범이 갖는 고유한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준다.

### 한국 사회와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남성성과 남성적 규범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심리, 사회, 문화적 현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국내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고(김지현 등, 2003; 이수연 등, 2012), 이 척도를 사용하여 성역할 갈등이 한국 남성의 심리적 적응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지현, 최희철, 2007; 성윤희, 정주리, 2019; 제연화, 심은정 2015). 또한 한국 사회문화를 고려하여 한국 남성의 남자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우성범, 2019)와 성역할 규범 모델의 이론적 개념을 반영한 전통적 남성성 척도 개발이 이루어져(마경희 등, 2019), 한국 남성의 남성성과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남성성 의미 척도가 타당화되어 우리나라 남아와 남자 청소년이 적응적

인 남성성을 획득해 나갈 방향에 대한 심리교육적 담론을 자극하였다(이혜령, 김진숙,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성의 삶의 질과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돕는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가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여 체면을 차리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집단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나은영, 1995; 장성숙, 2004) 우리나라 남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남성적 규범의 영향은 간과될 수 없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성인 남성의 전통적 남성성 측정을 위하여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는 남성의 성역할에 따른 역기능적 면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다면적인 남성성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마경희 등(2019)의 전통적 남성성 척도는 명령적 규범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회적 규범을 구성하는 기술적 규범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척도의 요인구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타당화하려는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는 다차원 요인구조의 적절성이 확보되어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남성적 속성과 부적응적인 속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을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하려는 원척도는 성역할 규범

모델에 기반하여 현대 사회에서 다면적인 남성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로써 척도의 내적 요인구조와 타당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에 관한 국내 측정도구인 남성 성역할 갈등 척도와 전통적 남성성 척도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 둘째, 원 척도는 남성적 규범의 속성에 관한 견고한 이론과 문헌을 바탕으로 도출된 남성성의 개별 요인에 대하여 아시아계 미국인, 북아메리카, 유럽, 러시아 등 서양 중심의 문화권에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확인한 측정도구이므로, 남성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우리나라에서도 측정도구의 유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 척도는 남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에 주목하여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심리치료 및 임상 장면에서 실천적 개입을 제안하여 남성심리학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척도이므로, 우리나라 남성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남성 연구의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MNI가 우리나라 남성에게서 몇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을 개발하고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CMNI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증분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남성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인지 검증할 것이다. 원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를 통해 상담심리학과 남성심리학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심리, 사회, 문화적 현상을 조명하고 남성성의 심리사회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확장함으로써 활발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성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연구는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동, 여성, 가족,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Berke et al., 2018), 본 연구는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교육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유의미한 기초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 연구 1: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 (K-CMNI-30) 개발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 1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CMNI)의 책임 개발자인 Mahalik으로부터 척도의 한국어 번안과 척도 타당화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척도 번안 작업을 진행하였다(승인일: 2022. 8. 4). 본 연구에서는 Levant 등(2020)이 CMNI-3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20년 전 처음 개발된 CMNI의 94문항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표현으로 적절히 수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83문항을 번안하였다. 이는 남성적 규범이 사회적 규범으로써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Levant 등(2020)의 연구에서 도출된 30문항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안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가 먼저 문항을 번역하고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2인, 석사 졸업 2인, 석사과정 1인의 자문을 구해 1차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이후 국내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캐나다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며 1,800여 편의 번역 및 검수 이력이 있는 1인이 번역본에 대하여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특성을 잘 알면서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상담심리학 교수 1인과 연구자가 원 척도의 문항과 역번역 문항을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여 척도의 번안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문항에 대한 설문은 조사 대행기관인 엠브레인 리서치에 의뢰되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50대 성인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에 의한 영향을 보다 가까이 경험할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적 집단 교류 가능성이 높은 청장년층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노년층은 현대 사회의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를 측정하기보다 이미 정형화된 과거의 규범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차원성을 측정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수집된 자료의 이용,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기관 내규에 따른 사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 수는 300개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수로 우수하며(Williams et al., 2010), 추정모수의 5배 이상이 제안된다는(Bentler & Chou, 1987) 두 제언을 충족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균 연령은 만 37.79세( $SD=9.604$ )이었으

며, 연령대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87명(17.4%), 30대 180명(36.0%) 40대 157명(31.4%), 50대 이상 76명(15.2%)이었다.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121명(24.2%), 경기도 150명(30%),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19명(23.8%), 강원도 8명(1.6%), 충청도 31명(6.2%), 전라도 21명(4.2%), 경상도 43명(8.6%), 세종시 1명(0.2%), 제주도 6명(1.2%)이었다.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1명(0.2%), 고등학교 졸업 114명(22.8%), 전문대 졸업 76명(15.2%), 대학교 졸업 263명(52.6%), 대학원 이상 46명(9.2%)이었으며, 현재 직업은 학생 48명(9.6%), 직장인 349명(69.8%), 자영업 46명(9.2%), 무직 35명(7.0%), 기타 22명(4.4%)이었다. 혼인 여부는 미혼 263명(52.6%), 기혼 217명(43.4%), 기타 20명(4.0%)이었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 467명(93.4%), 동성애 5명(1.0%), 양성애 12명(2.4%), 기타 16명(3.2%)이었다.

#### 측정도구

#####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본 연구에서 척도 개발을 위하여 활용한 83문항은 10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은 승리(winning) 11문항, 정서통제(emotion control) 11문항, 지위추구(pursuit of status) 5문항, 플레이보이(playboy) 10문항,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power over women) 9문항, 위험감수(risk-taking) 9문항, 일의 우위(primacy of work) 7문항, 이성애적 자기제시(heterosexual self-presentation) 10문항, 폭력(violence) 6문항, 자립(self-reliance) 5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든 문항은 6점 리커트로 1점(전혀 아니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전체 83문항 중 41문항은 역문항이므로 역코딩하여 채점한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에 해당하는 남성적 규범에의 순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리는 경쟁에서 이기거나 성취하는 것에 대한 규범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이기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가 있다. 정서통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나는 내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한다.’가 있다. 지위추구는 사회적 지위나 존재감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역문항의 예는 ‘사람들이 나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면 불편하다.’가 있다. 플레이보이는 가벼운 성행위에 대한 선호나 여성 편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성적 파트너를 자주 바꿀 것이다.’가 있다.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는 여성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행위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며, 역문항의 예는 ‘나는 여성을 동등하게 대한다.’가 있다. 위험감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즐기는 태도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즐긴다.’가 있다. 일의 우위는 자신의 삶에서 일을 우선시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나에게는 일이 우선이다.’가 있다. 이성애적 자기제시는 자신이 동성애자로 인식될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분노와 같은 강한 정서를 측정하며, 문항의 예는 ‘사람들이 나를 게이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할 것이다.’가 있다. 폭력은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측정하며, 문항의 예는 ‘나는 폭력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있다. 자립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나 거부감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는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할 때 신경이 쓰인다.’가 있다.



## 분석방법

연구 1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변별력을 낮추는 문항을 검토하기 위해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번안한 척도가 몇 개의 요인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자료의 정규성 확보를 전제로 하여 서원진 등(2018)의 제언에 따라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는 사각회전 방식이자 원 척도의 개발 방법과 동일한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Kaiser Meyer Olkin(KMO) 표본 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확인하고,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누적 분산비와 스크리 도표를 확인하였다. 문항 추출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어느 요인에도 부하되지 않는 문항과 요인부하량이 .40 이하로 확인된 문항, 그리고 교차적재량이 .10 이하인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Floyd & Widaman, 199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축형 개발 근거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론적 구조 모형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요인 모형, 10요인 모형, 위계적 2차 요인 모형, 이중요인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고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hi^2$  검정 결과와 CFI, RMSEA, SRMR을 검토하였다. CFI의 값이 .90 이상, SRMR이 .08 이하, RMSEA가 .08 이하인 경우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 타당화하려는 척

도와 같이 자유도가 높은 경우 RMSEA의 해석이 우선된다는 제언을 고려하였다(Kenny & McCoach, 2003).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을 3개씩 선별하여 K-CMNI-30을 개발하고,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K-CMNI-30이 CMNI-30과 동일한 10요인 구조를 갖는지 검토하였다.

## 결 과

###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평균값이 2.30에서 4.84의 범위로 나타나 6점 리커트 측정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극단값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의 표준편차가 .797로 나타난 1개 문항을 제외하면 문항의 표준편차의 범위가 .938에서 1.521로 나타나 자료의 적절성이 확인되었고, 표준편차가 .90 미만인 1개 문항은 변별력을 저하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제거하였다. 왜도는 -.969에서 .908으로, 첨도는 -.982에서 1.325의 범위로 나타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자료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분석을 통해 제거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남은 82개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KMO 지수가 .848로 나타나 .80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

에 적합하다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가정은 기각되어 탐색적 요인분석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chi^2(3321)=18421.292, p < .001$ ). 분석 결과에 따라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40 이하이면서 어느 요인에도 적재되지 않는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교차적재량이 .10 이하인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29개 문항이 제거

되었으며 10개 요인, 53문항이 도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이 원 척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므로 1요인 이성애 적 자기제시, 2요인 위협감수, 3요인 승리, 4요인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5요인 플레이보이, 6요인 정서통제, 7요인 폭력, 8요인 지위 추구, 9요인 일의 우위, 10요인 자립으로 명명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패턴행렬의 요인부하량 (N=500)

요인명	문항	요인부하량
1. 이성애적 자기제시	45. 사람들이 나를 게이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할 것이다	.900
	31. 누군가 나를 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매우 화가 날 것이다	.894
	65. 사람들이 나를 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819
	36. 누군가 나를 게이라고 생각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725
	15. 누군가 나를 게이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606
	72. 누군가 나를 게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518
	56. 나는 게이 친구들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515
2. 위협감수	22. 나는 위협을 무릅쓰는 것을 즐긴다	.739
	34. 나는 위협을 무릅쓴다	.720
	62. 나는 위협을 무릅쓸 때 가장 행복하다	.520
	16. 나는 위험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503
	53. 나는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에 놓는다	.455
	49. 위협을 무릅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446
	11. 위협을 무릅쓰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441
82. 나는 어떠한 종류의 위협도 정말 싫어한다*	.408	
3. 승리	59. 이기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723
	48. 나는 대체로 지는 것을 신경쓰지 않는다*	.714
	33. 나는 저도 상관없다*	.656
	42. 이기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474
4.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9. 나는 여성을 동등하게 대한다*	.791
	19. 나는 여성과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770
	29. 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것을 좋아한다*	.761
	50.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637
	63. 나는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410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패턴행렬의 요인부하량 (N=500)(계속)

요인명	문항	요인부하량
5. 플레이보이	41. 성적 파트너가 많으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839
	26.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과 연애할 것이다	.737
	3.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성적 파트너를 자주 바꿀 것이다	.710
	64. 나는 동시에 여러 사람과 연애하는 것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635
	28. 나는 그 사람과 연애하지 않는 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567
	75. 나는 한 사람과만 연애하는 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536
6. 정서통제	30.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 감정을 말한다*	.722
	46.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643
	69. 나는 내 감정을 나누는 편이다*	.640
	14. 나는 할 수 있을 때마다 내 감정을 드러낸다*	.615
	17.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560
7. 폭력	38. 나는 폭력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66
	71. 누군가 나를 매우 화나게 하더라도 나는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637
	60. 나는 폭력적인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626
	23. 나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싫어한다*	-.566
	55. 나는 필요하다면 몸싸움을 할 용의가 있다	-.412
8. 지위추구	24. 나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 정말 싫다*	.745
	44. 사람들이 나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면 불편하다*	.718
	35. 나는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기 위한 일은 잘 하지 않는다*	.593
	7. 나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538
	52. 지위를 갖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456
9. 일의 우위	57. 나는 일이 최우선일 때 기분이 좋다	.639
	68. 나에게서는 일이 우선이다	.619
	27. 나의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446
10. 자립	47. 나는 절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627
	66.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538
	10.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518
	77.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신경이 쓰인다	.500
	39.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표시일 것이다	.436

주. \*표기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요인별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3개 문항을 음영으로 표시함.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 (K-CMNI-30)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53문항에 대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단일요인 모형이  $\chi^2(df=1,325, N=500)=9300.714, p<.001, CFI=.253, SRMR=.128, RMSEA=.110$ , 10요인 모형이  $\chi^2(df=1,280, N=500)=3960.970, p<.001, CFI=.749, SRMR=.088, RMSEA=.065$ , 위계적 2차 요인 모형이  $\chi^2(df=1,315, N=500)=4231.175, p<.001, CFI=.718, SRMR=.102, RMSEA=.068$ , 이중요인 모형이  $\chi^2(df=1,272, N=500)=3251.038, p<.001, CFI=.815, SRMR=.083, RMSEA=.056$ 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53문항에 대한 모든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의 단축형 개발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단축형 척도 개발을 위하여 Levant 등(2020)이 활용한 요인부하량에 근거한 경험적 방법을 차용하여 하위요인별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3문항씩을 선정하여 K-CMNI-30을 개발

하고 요인구조를 확인한 결과, 10요인 모형이  $\chi^2(df=360, N=500)=969.895, p<.001, CFI=.882, SRMR=.058, RMSEA=.058$ 로 나타났다. CFI가 좋은 적합도의 기준에 가까웠으며, 자유도가 높은 경우 RMSEA의 해석이 우선된다는 제언을 고려하였을 때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enny & McCoach, 2003). 따라서 K-CMNI-30의 내적 요인구조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10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2: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 (K-CMNI-30) 타당화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 2에서는 K-CMNI-30의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2. 다차원 요인구조 검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 지수 (N=500)

		$\chi^2$	df	CFI	SRMR	RMSEA (90% 신뢰구간)
EFA 결과 도출된 53문항	단일요인 모형	9300.714***	1,325	.253	.128	.110 (.108-.112)
	10요인 모형	3960.970***	1,280	.749	.088	.065 (.062-.067)
	위계적 2차 요인 모형	4231.175***	1,315	.718	.102	.068 (.065-.070)
	이중요인 모형	3251.038***	1,272	.815	.083	.056 (.053-.058)
K-CMNI-30 (30문항)	단일요인 모형	4563.188***	405	.187	.137	.143 (.140-.147)
	10요인 모형	969.895***	360	.882	.058	.058 (.054-.062)
	위계적 2차 요인 모형	1232.181***	395	.836	.085	.065 (.061-.069)
	이중요인 모형	1074.596***	375	.863	.077	.061 (.057-.065)

주. \*\*\*  $p<.001$

연구 1의 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첫째, ‘furious’를 ‘매우 화가 나다’에서 ‘격분하다’로 수정하였다. ‘매우’와 같은 빈도 부사가 리커트에 반영되어 있어 정밀한 측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해당 문항이 문항 간 상관관계수( $r=.767$ ,  $r=.708$ )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문항 간 상관을 적절한 범위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둘째, ‘hate’를 ‘정말 싫다’에서 ‘싫다’로 수정하였다. ‘hate’가 일반적으로 ‘싫다’로 번역될 수 있으며 문항 개발 시 전체 긍정이나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지양하기에 ‘정말 싫다’가 포함된 2개 문항을 ‘싫다’로 수정하였다. ‘절대 아니다(never)’ 역시 전체 부정을 나타내므로 2개 문항에서 ‘절대’의 표현을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대행기관인 엠브레인 리서치에 의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50대 성인 남성 345명을 대상으로 연구 2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 1을 위한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1에 참여한 자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연구 1에 참여한 자의 패널 ID를 조사기관에서 목록화하여 설문 링크를 비활성화한 다음에 연구 1에 참여하지 않은 ID가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수집된 자료의 이용 및 비밀보장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한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기관 내규에 따른 사례를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균 연령은 만 38.44세( $SD=9.184$ )이었으며,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48명(13.9%), 30대 136명(39.4%) 40대 101명(29.3%), 50대 이상 60명(17.4%)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시 89

명(25.8%), 경기도 92명(26.7%),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80명(23.2%), 강원도 11명(3.2%), 충청도 17명(4.9%), 전라도 18명(5.2%), 경상도 37명(10.7%), 세종시 1명(0.3%)이었다.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1명(0.3%), 고등학교 졸업 54명(15.7%), 전문대 졸업 57명(16.5%), 대학교 졸업 195명(56.5%), 대학원 이상 38명(11.0%)이었으며, 현재 직업은 학생 23명(6.7%), 직장인 245명(71.0%), 자영업 34명(9.9%), 무직 29명(8.4%), 기타(공무원, 군인, 아르바이트 등) 14명(4.1%)이었다. 혼인 여부는 미혼 165명(47.8%), 기혼 167명(48.4%), 기타 13명(3.8%)이었으며, 병역 여부는 병역 필 307명(89.0%), 미필 8명(2.3%), 면제 및 특례 25명(7.2%), 기타 5명(1.4%)이었다. 현재 월 소득은 없음 19명(5.5%), 100만원 미만 28명(8.1%), 100-300만원 미만 91명(26.4%), 300-500만원 미만 129명(37.4%), 500-700만원 미만 46명(13.3%), 700-900만원 미만 19명(5.5%), 900만원 이상 13명(3.8%)이었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 327명(94.8%), 동성애 2명(0.6%), 양성애 2명(0.6%), 기타 14명(4.1%)이었다. 정신건강 전문의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 여부는 없음 272명(78.8%), 있음 62명(18.0%), 현재 상담 또는 치료 중 5명(1.4%), 기타 6명(1.7%)이었다.

#### 측정도구

#####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K-CMNI-30)을 사용하여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10개 하위요인인 이성애적 자기제시, 위험감수, 승리,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플레이보이, 정서통제, 폭력, 지위추구, 일의 우위, 자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마다 3문항으로 구성된 총 30문항의 척도이다. 6점 리커트로 1점(전혀 아니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며 15문항은 역문항이므로 역코딩하여 채점한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해당하는 남성적 규범에의 순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evant 등(202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백인 .72~.94, 유색인 .60~.94 이었고, Krivoshchekov 등(2022)의 연구에서는 .63~.94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4~.86으로 나타났다.

#### 남성 성역할 갈등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O'Neil 등(1986)과 Eisler와 Skidmore(1987)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수연 등(2012)이 타당화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7문항으로 한국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며 6개 하위요인인 남성우월,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성공·권력·경쟁,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가장의 무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가 있다. 6점 리커트로 1점(전혀 아니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남성 성역할 갈등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전통적 남성성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Thompson과 Pleck(1986), 마경희 등(2017)의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마경희 등(2019)이 개발한 전통적 남성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한국 남성이 전통적 남성성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전통적 남성성이란 우리 사회 남성에게 기대되는 이상적 성향과 기질로 정의된다(마경희 등, 2019). 이 척도는 4개 하위요인인 성적·물리적 힘, 경쟁·성공 추구 성향, 서열관계와 복종, 감정절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9문항이다. 문항의 예로는 '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가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로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5점(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동조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 우울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Radloff(1977)가 개발한 역학조사센터 우울증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Kohout 등(1993)이 축약하여 11문항의 단축형으로 개발한 CESD-11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하여 0점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1점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2점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3점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로 응답하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문항의 예로는 '상당히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가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불안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Spitzer 등(2006)이 개발한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을 Seo와 Park(2015)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형 GAD-7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주일 동안 불안에 관련된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을 0점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 1점 ‘며칠동안 방해를 받았다’, 2점 ‘절반 이상 방해를 받았다’, 3점 ‘거의 매일 방해를 받았다’로 측정하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문항의 예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가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상대분노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Spielberger 등(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경구 등(199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STAXI-K에서 상대분노를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기분과 심정에 대하여 1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미칠 듯이 화가 나 있다’가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상대분노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 회피적 대처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Holahan과 Moos(1987)의 대처전략 질문지를 유성은(1997)이 번안 및 수정하여 만든 질문지에서 김현지와 권정혜(2012)가 회피적 대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회피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3이었다.

### 정신적 웰빙

본 연구에서는 준거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임영진 등(2012)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정신적 웰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 하위요인인 정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4문항이다. 문항의 예는 ‘행복감을 느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다.’가 있다. 각 문항은 지난 한달 간 경험에 대하여 0점(전혀 없었다)부터 5점(매일 있었다)로 측정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

본 연구에서는 증분타당도 검정을 위하여 정소은(2011)이 개발한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측정하며, 4개 하위요인인 상담에 대한 낙인 두려움, 상담 및 상담자에 대한 기대, 상담 과정/결과 두려움,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5문항이다.

문항의 예는 ‘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가 있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로 측정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변산성을 확보하고 정밀한 측정을 위해 6점 리커트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분석방법

연구 2에서는 K-CMNI-30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경향성과 정규성을 검토하고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정하였고, 문항 간 상관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수정이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 검정 결과와 CFI, RMSEA, SRMR을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구인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위요인에 속한 각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일 때 해당 문항이 하위요인에 수렴한다고 판단하였으며(Wang & Wang, 2012),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가 .90 이하일 때 하위요인의 개념이 변별된다고 판단하였다(Kline, 2011).

다음으로 K-CMNI-30과 남성 성역할 갈등, 전통적 남성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Levant 등(2020)이 개발한 CMNI-30의 경우, 전통적 남성성 측정도구와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rivoshchekov 등(2022)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정서통제, 지위추구 요인을 제외하고 8개 하위요인이 남성 성역할 갈등, 전통적 남성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이 심리적 적

응과 부적응 및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우울, 불안, 상태분노, 회피적 대처, 정신적 웰빙,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감수, 플레이보이, 자립 요인이 우울,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정서통제, 지위추구, 일의 우위가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Levant et al., 2020). 이성애적 자기제시, 승리,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폭력, 자립 요인이 상태분노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Salgado et al., 2019), 위험감수,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플레이보이, 폭력, 자립 요인이 회피적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Gerdes & Levant, 2018).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플레이보이, 정서통제, 자립 요인이 정신적 웰빙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위험감수, 승리, 지위추구, 일의 우위 요인이 정신적 웰빙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Wong et al., 2017). 위험감수,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정서통제, 폭력, 자립 요인이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Steinfeldt & Steinfeldt, 2012).

마지막으로 K-CMNI-30이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를 설명하는 데 남성 성역할 갈등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증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하여 Mplus 7.0과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10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hi^2$  ( $df=360, N=345$ )=855.885,  $p<.001$ , CFI=.882, SRMR=.060, RMSEA=.063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척도의 구인 타당도를 살펴

보면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479~.862로  $p<.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충족했으며(Wang & Wang, 2012),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가 -.539~.641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Kline, 2011). 하위요인별 신뢰도가 .74~.86의 범위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표 3.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K-CMNI-30)의 모형 적합도 지수 (N=345)

	$\chi^2$	df	CFI	SRMR	RMSEA (90% 신뢰구간)
10요인 모형	855.885***	360	.882	.060	.063 (.058-.069)

주. \*\*\*  $p<.001$

표 4.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K-CMNI-30)의 문항별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N=345)

요인명	문항	요인부하량	신뢰도
이성애적 자기제시	사람들이 나를 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776	.84
	사람들이 나를 게이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할 것이다	.838	
	누군가 나를 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격분할 것이다	.801	
위험감수	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즐긴다	.830	.80
	나는 위험을 무릅쓴다	.735	
	나는 위험을 무릅쓸 때 가장 행복하다	.719	
승리	나는 저도 상관없다*	.688	.80
	나는 대체로 지는 것을 신경쓰지 않는다*	.810	
	이기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764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것을 좋아한다*	.854	.86
	나는 여성과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844	
	나는 여성을 동등하게 대한다*	.758	
플레이보이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성적 파트너를 자주 바꿀 것이다	.837	.80
	성적 파트너가 많으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815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과 연애할 것이다	.622	
정서통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 감정을 말한다*	.651	.78
	나는 내 감정을 나누는 편이다*	.743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820	

표 4.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K-CMNI-30)의 문항별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계속)  
(N=345)

요인명	문항	요인부하량	신뢰도
폭력	나는 폭력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36	
	나는 폭력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802	.76
	누군가 나를 매우 화나게 하더라도 나는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712	
지위추구	나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 싫다*	.749	
	나는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기 위한 일은 잘 하지 않는다*	.638	.75
	사람들이 나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면 불편하다*	.733	
일의 우위	나에게는 일이 우선이다	.734	
	나의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686	.77
	나는 일이 최우선일 때 기분이 좋다	.762	
자립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싫어한다	.756	
	나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862	.74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479	

주. \*표기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에 해당하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을 제시하였음.

#### 기술통계 및 요인 간 상관분석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하위요인별 평균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이성애적 자기제시(M=4.80)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지위추구(M=3.84), 승리(M=3.64), 일의 우위(M=3.54), 자립(M=3.54), 플레이보이(M=3.52), 정서통제(M=3.39), 폭력(M=2.80), 위협감수(M=2.70),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M=2.66)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Levant 등(2020)의 연구에서 정서통제와 지위추구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것과 Krivoshchekov 등(2022)의 연구에서 이성애적 자기제시와 정서통제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경향과 혼합된 양상을 보였다.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위추구와 승리( $r=.64$ ), 폭력과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r=.49$ ), 위협감수와 일의 우위( $r=.49$ ), 플레이보이와 위협감수( $r=.37$ ), 플레이보이와 폭력( $r=.26$ ), 정서통제와 자립( $r=.26$ )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립과 지위추구( $r=-.54$ ), 정서통제와 위협감수( $r=-.41$ ), 자립과 승리( $r=-.32$ ), 정서통제와 일의 우위( $r=-.29$ )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수렴 및 변별타당도

K-CMNI-30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성 성역할 갈등, 전통적 남성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가정한 대로 남성 성역할 갈등과 위협감수

표 5.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K-CMNI-30)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계수 (N=345)

	1	2	3	4	5	6	7	8	9	10
1. 이성애적 자기제시	1									
2. 위험감수	-.16*	1								
3. 승리	.20**	.06	1							
4.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14*	.02	.14*	1						
5. 플레이보이	.03	.37***	.02	.00	1					
6. 정서통제	-.14*	-.41***	-.05	.16*	-.22**	1				
7. 폭력	-.14*	.16*	.22**	.49***	.26***	.01	1			
8. 지위추구	.15*	-.17*	.64***	-.07	-.15*	.08	-.05	1		
9. 일의 우위	.06	.49***	.13	-.08	.14*	-.29***	-.09	.06	1	
10. 자립	-.17**	.15*	-.32***	.08	.21**	.26***	.04	-.54***	-.05	1
평균	4.80	2.70	3.64	2.66	3.52	3.39	2.80	3.84	3.54	3.54
표준편차	1.18	1.01	.96	.92	1.29	.92	1.00	.95	.98	.95
왜도	-.90	.26	.24	.65	.01	.21	.12	-.06	-.21	-.15
첨도	.19	-.52	-.20	.69	-.42	-.18	-.23	-.03	.03	-.11

주. \* $p < .05$ , \*\* $p < .01$ , \*\*\* $p < .001$

표 6.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K-CMNI-30)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정을 위한 상관분석 (N=345)

	1	2	3	4	5	6	7	8	9	10
남성 성역할 갈등	-.06	.45***	.01	.15**	.26***	-.19***	.16**	-.28***	.39***	.29***
전통적 남성성	.08	.38***	.22***	.24***	.25***	-.24***	.27***	-.08	.31***	.17**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1=이성애적 자기제시, 2=위험감수 3=승리, 4=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5=플레이보이, 6=정서통제, 7=폭력, 8=지위추구, 9=일의 우위, 10=자립. 음영 표시를 제외하고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정적상관을 가정함.

( $r = .45, p < .001$ ),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r = .15, p < .01$ ), 플레이보이( $r = .26, p < .001$ ), 폭력( $r = .16, p < .01$ ), 일의 우위( $r = .39, p < .001$ ), 자립( $r = .29, p < .0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전통적 남성성과 위험감수( $r = .38, p < .001$ ), 승리( $r = .22, p < .001$ ),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r = .24, p < .001$ ), 플레이보이( $r = .25, p < .001$ ), 폭력( $r = .27, p < .001$ ), 일의 우위( $r = .31, p < .001$ ), 자립( $r = .17, p < .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서통제( $r = -.19, p < .001$ )와 지위

추구( $r=-.28, p<.001$ )가 남성 성역할 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통제( $r=-.24, p<.001$ )가 전통적 남성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성애적 자기제시가 남성 성역할 갈등, 전통적 남성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승리와 남성 성역할 갈등, 지위추구와 전통적 남성성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에 따라 K-CMNI-30이 유사한 측정 도구인 남성 성역할 갈등, 전통적 남성성 척도와 대체로 수렴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갖는 변별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준거관련 타당도

K-CMNI-30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 불안, 상태분노, 회피적 대처, 정신적 웰빙,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를 준거 변인으로 사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가정한 대로 위험감수( $r=.21, p<.001$ ), 플레이보이( $r=.11, p<.05$ ), 자립( $r=.22, p<.001$ )이 우울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지위추구( $r=-.22, p<.001$ )가 우울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위험감수( $r=.18, p<.01$ ), 플레이보이( $r=.13, p<.05$ ), 자립( $r=.23, p<.001$ )이 불안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통제( $r=-.10, p<.05$ )와 지위추구( $r=-.14, p<.01$ )가 불안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예상과 달리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가 우울( $r=.11, p<.05$ ), 불안( $r=.13, p<.05$ )과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일의 우위 역시 우울( $r=.12, p<.05$ ), 불안( $r=.12, p<.05$ )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성애적 자기제시는 우울( $r=-.23, p<.001$ ), 불안( $r=-.18, p<.01$ )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상태분노는 가정한 바와 같이, 폭력( $r=.16, p<.01$ ), 자립( $r=.18, p<.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승리,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는 가정과 달리 상태분노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이성애적 자기제시( $r=-.14, p<.05$ )가 상태분노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회피적 대처는 가정한 대

표 7.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K-CMNI-30)의 준거타당도 검정을 위한 상관분석 (N=345)

	1	2	3	4	5	6	7	8	9	10
부정적 정신건강										
우울	-.23***	.21***	-.06	.11*	.11*	-.09	.10	-.22***	.12*	.22***
불안	-.18**	.18**	.02	.13*	.13*	-.10*	.10	-.14**	.12*	.23***
상태분노	-.14*	.11	-.07	.10	.10	-.08	.16**	-.14**	-.06	.18**
회피적 대처	-.09	.16**	.03	.12*	.13*	-.03	.11*	-.12*	.04	.24***
긍정적 정신건강										
정신적 웰빙	.09	.14*	.00	-.15**	-.03	-.19***	-.16**	.21***	.14**	-.24***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	.21***	-.21***	.03	-.34***	-.14*	.03	-.28***	.29***	-.09	-.32***

주. \* $p<.05$ , \*\* $p<.01$ , \*\*\* $p<.001$ . 1=이성애적 자기제시, 2=위험감수 3=승리, 4=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5=플레이보이, 6=정서통제, 7=폭력, 8=지위추구, 9=일의 우위, 10=자립.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가정한 상관관계를 음영으로 표시함.

로 위험감수( $r=.16, p<.01$ ), 여성에 대한 권력 행사( $r=.12, p<.05$ ), 플레이보이( $r=.13, p<.05$ ), 폭력( $r=.11, p<.05$ ), 자립( $r=.24, p<.001$ )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반면, 가정과 달리 지위추구( $r=-.12, p<.05$ )가 회피적 대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r=-.15, p<.01$ ), 정서통제( $r=-.19, p<.001$ ), 자립( $r=-.24, p<.001$ )이 예상한 대로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플레이보이는 가정과 달리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또한 위험감수( $r=.14, p<.05$ ), 지위추구( $r=.21, p<.001$ ), 일의 우위( $r=.14, p<.01$ )가 가정대로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승리는 가정과 달리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폭력( $r=-.16, p<.01$ )이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 $r=-.21, p<.001$ ),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r=-.34, p<.001$ ), 폭력( $r=-.28, p<.001$ ), 자립( $r=-.32, p<.001$ )이 가정한 대로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가정하지는 않았으나 플레이보이( $r=-.14, p<.05$ )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예상과 달리 정서통제가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이성애적 자기제시( $r=.21, p<.001$ ), 지위추구( $r=.29, p<.001$ )가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선행연구에 근거한 준거관련 타당도를 부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Wong 등(201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K-CMNI-30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신건강 변인들보다도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와 더 큰 수준의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증분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남성 성역할 갈등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제연화, 심은정 2015), K-CMNI-30이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남성 성역할 갈등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인으로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를 설정하여, 1단계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K-CMNI-30의 10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왜도가 -.69에서 .73, 첨도는 -.55~.69으로 나타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자료의 정규성이 확인되었고(Curran et al., 1996), 공차가 .589~.893, 분산팽창지수(VIF)가 1.120~1.699의 범위로 나타나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2.025로 1과 3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이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의 24.4%를 설명하였고( $R^2=.244, p<.001$ ), 2단계에서 K-CMNI-30은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를 추가적으로 14.1%를 설명하였으며 그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elta R^2=.141, p<.001$ ). 즉, K-CMNI-30이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남성 성역할 갈등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한 변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beta=-.20, p<.001$ ), 자립( $\beta=-.14, p<.01$ ), 폭력

표 8.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K-CMNI-30)의 증분타당도 검정을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N=345)

		종속변수: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					
	독립변수	B	S.E	t	$\beta$	R <sup>2</sup>	$\Delta R^2$
1단계	남성 성역할 갈등	-.46	.04	-10.52	-.49***	.244	.244***
	남성 성역할 갈등	-.35	.05	-6.74	-.38***		
	이성애적 자기제시	.07	.02	2.79	.13**		
	위험감수	.01	.03	.37	.02		
	승리	-.02	.03	-.48	-.02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14	.03	-4.17	-.20***		
2단계	플레이보이	.01	.02	.42	.02	.385	.141***
	정서통제	.03	.03	.78	.04		
	폭력	-.07	.03	-2.25	-.11*		
	지위추구	.08	.04	2.14	.12*		
	일의 우위	.01	.03	.34	.02		
	자립	-.09	.03	-2.69	-.14**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beta = -.11, p < .05$ )이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에 미치는 부적 효과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이성애적 자기제시( $\beta = .13, p < .01$ ), 지위추구( $\beta = .12, p < .05$ )가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 효과가 있었고 위험감수, 승리, 플레이보이, 정서통제, 일의 우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Levant 등(2020)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판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 척도 단축형(K-CMNI-30)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 성인 남성 500명을 대상

으로 K-CMNI-30을 개발하고 다차원 요인구조를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성인 남성 345명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K-CMNI-30이 우리나라 남성의 다차원적 남성성을 측정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K-CMNI-30이 원척도와 동일하게 이성애적 자기제시, 위험감수, 승리,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플레이보이, 정서통제, 폭력, 지위추구, 일의 우위, 자립으로 구성된 10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CMNI의 기존 연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남성성

을 설명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한 것에 있어서 한국 남성의 남성성을 구성하는 심리적 구성개념으로도 적절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K-CMNI-30의 다차원 요인구조를 검증한 결과, Levant 등(2020), Krivoshchekov 등(202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10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하위요인들이 영역 특수적 요인으로써 개별적인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남성성 규범이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K-CMNI-30의 개별 하위요인의 활용이 상당한 임상적 유용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K-CMNI-30의 10개 하위요인이 남성 성역할 갈등, 전통적 남성성과 수렴하면서도 변별되는 특성이 있는 구성개념으로 확인되어 남성성의 역기능적 측면을 반영한 성역할 갈등이나 명령적 규범만을 반영한 전통적 남성 성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감수, 승리,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플레이보이, 폭력, 일의 우위, 자립이 전통적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맥락에서 남성의 심리적 갈등이나 우리나라 남성에게 기대되는 이상적 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정서통제, 지위추구와의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나, 존재감 있는 인물로 인식되기 위한 것이 남성의 심리적 갈등이나 이상적 남성성에 대한 동의와는 반대되는 속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정서통제와 지위추구에 대한 남성성 규범은 전통적인 남성성 이데올로기와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서양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이성애적 자기제시가 남성 성역할 갈등이나 전통적 남성성과 관련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동성애자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나라 남성의 심리적 갈등을 의미하거나 남성에게 기대되는 이상적 성향에 대한 동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성애적 자기제시와 우울, 불안, 상태분노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확인된 결과는 서양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며(Levant et al., 2020; Wong et al., 2017), 남성 이성애자가 가지는 이성애 특권이 문화적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애경, 윤은희(2020)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성애를 추구하고 이성애자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보편적인 성적 지향 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에서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공성욱 등, 2022). 한편, 이성애적 자기제시와 정신적 웰빙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이성애라는 보편적인 성적 지향을 고수하는 것과 행복감이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정서통제는 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신적 웰빙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Levant 등(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남성에게 기대되는 정서통제 규범의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고찰을 자극하며, 정서통제의 적응적이고 부적응적인 양방향 효과를 모두 보여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통제가 감정표현 억제

를 하위요인으로 둔 남성 성역할 갈등이나 감정절제를 하위요인으로 둔 전통적 남성성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이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서통제는 무모하거나 위협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협감수, 플레이보이와 큰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이며, 이는 정서통제 규범이 절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를 잘 참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사회문화적으로 적응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문화적 인식이나(이은경, 서은국, 2009), 적극적 억제와 관련하여 '감정 컨트롤을 잘 하는가'에 관련된 해석에 있어 타당성을 갖는다(최해연, 민경환,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통제와 정신적 웰빙 간 부적 상관이 정서통제와 불안 간 부적 상관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서적 통제가 일부 적응적인 면이 있더라도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나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는 부적응적인 면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지위추구는 우울, 불안, 상태분노, 회피적 대처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나 K-CMNI-30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정신건강의 높은 질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위추구는 사회적 상황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 즉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규범에의 순응을 측정한다. 따라서 지위추구 규범은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감을 얻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남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인정받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긍정 심리학-긍정 남성성(Positive Psychology-Positive Masculinity; PPPM) 관점에서 남성이 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으며, 집단이 남성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언에 상응한다(Kiselica & Englar-Carlson, 2010). 따라서 우리나라 남성에게 지위추구 규범이 지지 자원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립은 지위추구와 반대의 경향성을 갖는 요인으로 우울, 불안, 상태분노, 회피적 대처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K-CMNI-30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정신건강의 낮은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Levant et al., 2020; Wong et al., 2017), 자립이 동서양 문화를 막론하고 남성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일관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립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측정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기회를 박탈시키고 자신에게만 의존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이다. 특히 자립은 하위요인 중에서도 지위추구와 가장 강한 부적 상관을 갖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빈약할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자립과 유사한 경향을 갖는 하위요인으로는 보다 약한 상관을 보이긴 하나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플레이보이, 폭력이 있다. 이러한 규범들은 남성적 규범 중에서도 우리나라 남성의 정신건강의 질을 낮추는 데 관련이 있는 규범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협감수는 우울, 불안, 회피적 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신적 웰



빙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나 특수한 양상을 보였다. 위험감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McNulty & Fincham, 2012),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위험감수는 낙관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위협에 도전하고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대담하게 직면하여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용기와 충동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위협하거나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져 자살과 같은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의 우위 요인 또한 우울,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신적 웰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일이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거나 개인의 건강이나 삶의 균형감을 저해할 수 있다. 위험감수와 일의 우위는 서로 상관이 매우 높으며, 남성 성역할 갈등 및 전통적 남성성과의 상관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치료적 개입을 위한 탐색을 할 때,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구분하여 맥락에 따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험감수와 일의 우위에 대한 규범에의 순응이 삶의 주관적 만족감이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도 내재된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역동적이고 복잡한 심리 상태를 인식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K-CMNI-30가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남성 성역할 갈등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한 변량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K-CMNI-30의 10개

하위요인이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남성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련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남성성의 다차원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기존 연구에서 남성 성역할 갈등이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의 위험요인으로 일관적으로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를 지지하는 남성성 요인과 저해하는 남성성 요인에 대한 통합적 모형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서양 중심 연구에서 CMNI의 대부분 하위요인들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우 하위요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여 우리나라 남성들의 남성성이 전문적인 상담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였다.

특히 이성애적 자기제시와 지위추구는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상담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으며 상담에 대한 열린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기여하는 남성적 규범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성적 지향이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경우, 전문적 상담 요청에 대한 장벽을 높게 지각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남성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전문적 도움추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찾아 온 행위에 대하여 격려하고 내재된 희망을 발견하며 사회적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 자립, 폭력은 전문적 상담추구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Wong et al., 2017).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 성역할 갈등이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은폐와 자기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김주미, 유성경, 2002; 신연희, 안현의, 2005). 즉, 여성에 대한 통제와 지배권을 갖는 남성적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을수록 전문가에 의한 심리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감소하며,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아질수록 심리상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불편하게 여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는 남성우월 및 성차별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폭력은 물리적 힘의 과시와 분노 표출과 관련이 있다. 이 두 요인은 공통적으로 힘과 통제에 관한 남성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립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에게만 의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취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권력행사나 폭력 규범에의 동조가 높은 경우,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관계로 인하여 여성 상담자에 대한 저항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립에 대한 동조가 높은 경우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마주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살피는 과정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이 높은 남성 내담자와 친화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을 고안할 수 있다면 고무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CMNI가 우리나라 남성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원 문항을 충실히 번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에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한 문항 수정이나 추가적인 문항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남성적 규범이 반영된 척도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문화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준거 변인을 활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남성적 규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에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를 포함하여 국내 타당화를 거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적 개념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남성적 규범에 관한 심리적 구성개념은 사회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문화적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 제안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Levant 등(2020)이 활용한 요인부하량에 근거한 경험적 방법을 차용하여 하위요인별 요인부하량이 높은 3문항씩을 선정하여 K-CMNI-30을 개발하였기에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나, 요인부하량이 높은 기준으로 문항을 선별할 경우 문항 간 상관성이 높은 문항끼리 묶여 비슷한 문항만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출된 문항들이 개별 요인의 개념을 잘 대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에 비추어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대상의 대부분이 이성

애자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성애가 아닌 성적 지향을 가진 표본을 수집하여 타당도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성애와의 표본 대응을 통해 교차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표본도 집단 간 변별력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K-CMNI-30이 우리나라 남성의 다차원적인 남성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Levant 등(2020)의 CMNI-30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검증된 연구 절차를 따랐으며, 구인타당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 증분타당도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연령대의 표본을 사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K-CMNI-30에 대한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보완하여 국내 남성 심리학 연구와 상담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2002).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41(5), 930-941.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김지현, 최희철 (2007).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지: 여성*, 12(2), 145-160.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 (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3), 25-41.

김현지, 권정혜 (2012).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회피적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2), 589-606.

나은영 (1995).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체면과 동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33-51.

마경희, 문희영, 조서연, 김리나 (2017).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마경희, 조영주, 문희영, 이은아, 이순미 (2019).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계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성윤희, 정주리 (2019).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2), 547-567.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우성범 (2019). 한국 남성의 남자다움은 무엇인가?: 남성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3), 203-229.

유성은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 중년 여성의

-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1), 5-33.
- 이은경, 서은국 (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이혜령, 김진숙 (2018). 한국판 청소년 남성성 의미 척도(K-MAMS)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9(3), 183-207.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27.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정소은 (2011). 전문적 상담 추구 태도 척도의 개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애경, 윤은희 (2020). 한국 이성애자의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탐색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583-608.
- 제연화, 심은정 (2015). 2/30 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31-952.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Bentler, P. M., & Chou, C. P.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1), 78-117.
- Berger, J. L., Addis, M. E., Green, J. D., Mackowiak, C., & Goldberg, V. (2013). Men's reactions to mental health labels, forms of help-seeking, and sources of help-seeking advic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4(4), 433-443.
- Berke, D. S., Reidy, D., & Zeichner, A. (2018). Masculinity,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egrated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66, 106-116.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7), 513-531.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ialdini, R. B., & Goldstein, N. J. (2004). Social influence: Compliance and conform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1), 591-621.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isler, R. M., & Skidmore, J. R. (1987).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stressful situations. *Behavior modification*, 11(2), 123-136.
- Fellers, M., & Schrodt, P. (2021). Perceptions of fathers' confirmation and affection as mediators of masculinity and relational quality in

- father-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21(1), 46-62.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299.
- Gerdes, Z. T., & Levant, R. F. (2018). Complex relationships among masculine norms and health/well-being outcomes: Correlation patterns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subscales.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12(2), 229-240.
- Hammer, J. H., Heath, P. J., & Vogel, D. L. (2018). Fate of the total score: Dimensionality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46 (CMNI-46).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9(4), 645-651.
- Heath, P. J., Brenner, R. E., Vogel, D. L., Lannin, D. G., & Strass, H. A. (2017). Masculinity and barriers to seeking counseling: The buffering role of self-compa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1), 94-103.
- Holahan, C. J., & Moos, R. H.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46 - 955.
- Hsu, K., & Iwamoto, D. K. (2014). Testing for measurement invariance in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46 across White and Asian American college men: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CMNI-29.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5(4), 397-40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wamoto, D. K., Liao, L., & Liu, W. M. (2010). Masculine norms, avoidant coping, Asian values, and depression among Asian American me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1(1), 15-24.
- Iwamoto, D. K., Corbin, W., Lejuez, C., & MacPherson, L. (2014). College men and alcohol use: Positive alcohol expectancies as a mediator between distinct masculine norms and alcohol use.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5(1), 29-39.
- Kenny, D. A., & McCoach, D. B. (2003). Effect of the number of variables on measures 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0(3), 333-351.
- Kiselica, M. S., & Englar-Carlson, M. (2010). Identifying, affirming, and building upon male strengths: the positive psychology/positive masculinity model of psychotherapy with boys and me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7(3), 276-287.
-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In M. Williams (Ed.), *Handbook of methodological innovation*. Thousand Oaks, CA: Sage.
-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 Cornoni-Huntley, J.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179-193.
- Krivoshchekov, V., Gulevich, O., & Ostroverkhova, M. (2022).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30: Validity and measurement invariance of a Russian-language version.

-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3(1), 59-73.
- Levant, R. F. (2011). Research in the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using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s a framework. *American Psychologist*, 66(8), 765-776.
- Levant, R. F., Hall, R. J., Weigold, I. K., & McCurdy, E. R. (2015). Construct distinctiveness and variance composition of multi-dimensional instruments: Three short-form masculinity meas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3), 488-502.
- Levant, R. F., McDermott, R., Parent, M. C., Alshabani, N., Mahalik, J. R., & Hammer, J. H. (202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new short form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CMNI-30).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5), 622-636.
- Locke, B. D., & Mahalik, J. R. (2005). Examining masculinity norms, problem drinking, and athletic involvement as predictors of sexual aggression in college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279-283.
- Mahalik, J. R., Locke, B. D., Ludlow, L. H., Diemer, M. A., Scott, R. P., Gottfried, M., & Freitas, G. (2003). Development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4(1), 3-25.
- Mahalik, J. R., Talmadge, W. T., Locke, B. D., & Scott, R. P. (2005). Using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to work with men in a clinical sett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6), 661-674.
- March, E., Grieve, R., Clancy, E., Klettke, B., van Dick, R., & Hernandez Bark, A. S. (2021).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yber dating abuse perpetra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4(7), 457-463.
- McNulty, J. K., & Fincham, F. D. (2012). Beyond positive psychology? Toward a contextual view of psychological processes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67(2), 101-110.
- O'Neil, J. M. (1982).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in men's lives: Implications for psychiatrists, psychologists, and other human service providers. In K. Solomon & N. B. Levy (Eds.), *Men in transition: Changing male roles, theory, and therapy* (pp. 5-44). New York, NY: Plenum.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5), 335-350.
- Owen, J., Wong, Y. J., & Rodolfa, E.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s'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and their perceptions of helpful therapist ac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1), 68-78.
- Owen, J. (2011). Assessing the factor structures of the 55-and 22-item versions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5(2), 118-128.
- Parent, M. C., & Moradi, B. (2009).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and development of the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46.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0(3), 175-189.
- Petts, R. J., Shafer, K. M., & Essig, L. (2018). Does adherence to masculine norms shape fathering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 Family*, 80(3), 704-720.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F. Leva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New York, NY: Basic Books.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algado, D. M., Knowlton, A. L., & Johnson, B. L. (2019). Men's health-risk and protective behaviors: The effects of masculinity and masculine norm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0(2), 266-275.
- Seo, J. G., & Park, S. P. (2015). Validation of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and GAD-2 in patients with migraine. *The journal of headache and pain*, 16(1), 1-7.
- Shafer, K., Fielding, B., & Holmes, E. K. (2019). Depression, masculine norm adherence, and father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issues*, 40(1), 48-84.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s.),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NY: Springer.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Löwe, B.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 Steinfeldt, J. A., & Steinfeldt, M. C. (2012). Profile of masculine norms and help-seeking stigma in college football.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1(1), 58-71.
- Thompson Jr, E. H., & Pleck, J. H. (1986). The structure of male role norm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5), 531-543.
- Vogel, D. L., Heimerdinger-Edwards, S. R., Hammer, J. H., & Hubbard, A. (2011). "Boys don't cry": Examination of the links between endorsement of masculine norms, self-stigma, and help-seeking attitudes for men from diverse backgroun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3), 368-382.
- Walther, A., Grub, J., Tsar, S., Ehlert, U., Heald, A., Perrin, R., Ogrodniczuk, J. S., Seidler, Z. E., Rice, S. M., Kealy, D., Oliffe, J. L., & Eggenberger, L. (2023). Status loss due to COVID-19, traditional masculinity, and their association with recent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ies*, 24(1), 47 - 62.
-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John Wiley & Sons.
- Williams, B., Onsman, A., & Brown, T. (2010).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five-step guide for novices. *Australasian journal of paramedicine*, 8(3), 1-13.
- Wong, Y. J., Ho, M.-H. R., Wang, S.-Y., & Miller, I. S. K. (2017). Meta-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and mental health-related outcom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1), 80-93.

원 고 접 수 일 : 2023. 01. 05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3. 08  
게 재 결 정 일 : 2023. 03. 28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Short Version of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K-CMNI-30)

Seulk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Ph.D. Candidate

The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short version of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Inventory (K-CMNI-30) based on the research by Levant et al. (2020). In study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500 adult men aged 20s-50s which identified 10 subfactors. The K-CMNI-30 was developed, and the 10-factor model best fit the data. In Study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345 adult men aged 20s-50s, which confirmed the construct validity via item factor loadings and factor correlations. The convergent validity was confirmed by correlations with gender role conflict and traditional masculinity, and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confirmed by correlations with depression, anxiety, state-anger, avoidance coping, mental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counseling. To examine the incremental validity of the K-CMNI-30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counsel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Last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traditional masculinities, gender role norms, scale validation